

박기웅 “악역도 좋지만 스펙트럼 넓은 배우 되고 싶어”

MBC 수목극 ‘꼰대인턴’ 서 안하무인 준수식품 대표이사 남궁준수 역 “악역 이미지 고착 고민...여운 많이 남아 시즌2 한다면 무조건 참여”

“심각한 악역은 아니지만 입상할 수는 있어서, 밉지 않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MBC TV 수목극 ‘꼰대인턴’에서 안하무인인 준수식품 대표이사 남궁준수를 연기한 배우 박기웅(35)을 최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웃기면 웃어버리고, NG인가 연기인가 싶다가 다시 연기해버리고. 준수는 그런 캐릭터여서 자유로웠다. 구사숙 역의 김선영 선배가 진정한 악역을 해주셔서 준수는 심각한 악역이 아닐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5년 영화 ‘괴담’으로 데뷔한 박기웅은 영화 ‘두 사람이다’, ‘최종병기 활’, ‘은밀하게 위대하게’, ‘치즈인더트랩’ 등과 드라마 ‘연애결혼’, ‘추노’, ‘황금물고기’, ‘각시탈’, ‘몬스터’, ‘리턴’, ‘신입사관 구해령’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해 벌써 웬만한 현장에서는 ‘선배급’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연기한 남궁준수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기웅은 “대본이 재밌고, 내가 표현했을 때 재밌을 것 같은 역할이면 ‘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량보다는 제 나이에 해볼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려고 노력해요. 물론 악역을 자주 했고, 흥행도 잘됐죠. 악역 이미지가 고착되는 데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요. 물론 악역도 좋고 지금이 소중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갈수록 그 생각이 더 들고요. 저는 다 잘해요. (웃음)”

그는 이어 “작품이 잘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연기하는 쪽을 택한다. 흥망은 나의 손을 떠난 것이라 운에 맡겨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꼰대인턴’은 여운이 많이 남는다. 시즌2를 한다면 무조건 참여할 것”이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함께한 김응수, 박해진과의 팀워크도 강조했다. “배우들끼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엄청 활성화됐어요. 응수 선배님은 2005년부터 알았고, 해진 형도 친해요. 서로 아이

디어를 자유롭게 내고 좋다고 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라 감사했죠. 현장에 또래가 많아서 편하기도 했고요. 세대 차 나면 ‘꼰대’ 처럼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라떼(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싶은대로 했어요. (웃음)”

그는 이어 “현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작품도 잘됐다.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각시탈’ 때만큼은 아니지만 인사를 많이 받는다 고 한다”고 웃었다.

전작 ‘신입사관 구해령’에 이어 또 한 번 ‘박기웅의 재발견’이라는 칭찬에 대해 그는 만족했다. “제가 작품마다 ‘재발견’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엄청난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듣고 싶은 말입니다. (웃음)”

한편 ‘꼰대인턴’은 고연차의 부장으로부터 구박받던 인턴 사원이 이직 후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 자신을 괴롭히던 부장을 시니어 인턴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 해프닝을 그렸다.

극 초반에는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점철된 상사의 ‘갑질’을 실감 나게 그려내 사회 초년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중반부터는 전세가 역전된 가열찬의 복수극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꼰대화’ 된 자신의 모습에 고뇌하는 가열찬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주연 박해진과 김응수는 각각의 캐릭터를 십분 소화하고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유정 선배’ 박해진의 코미디 도전과 영화 ‘타짜’ 객출용 캐릭터로 황혼에 전성기를 맞은 김응수의 농익은 연기가 보는 재미를 안겨 줬다.

그러나 12부작의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에 이야기를 담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가열찬과 이만식의 관계를 풀어내는 데 호흡이 가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지상파 특유의 ‘올드’한 분위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박기웅

백지영의 여름 발라드 ‘거짓말이라도 해서...’ 신곡 14일부터 발매



가수 백지영(사진)이 애절함을 담은 발라드곡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트라이아스 엔터테인먼트는 백지영이 오는 14일 신곡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싶어’를 발매한다고 6일 밝혔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백지영표 이별 노래로, 지난해 12월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전작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를 만든 도코가 작곡했다.

도코는 윤하, 이석훈, 유빈, 벨, 자이언티 등 다양한 가수의 곡을 프로듀싱했으며 혼성 듀오 시적 화자로도 활동 중이다.

신곡 뮤직비디오에서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에서 호연을 펼친 남윤수가 주연을 맡았다. 소속사는 “남윤수가 가구 공방 시장으로 출연해 옛 연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섬세하게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이장우

진기주

KBS 주말극 ‘오! 삼광빌라’서 이장우-진기주 ‘알콩달콩’ 연기

KBS 2TV는 오는 9월 방송할 새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에 배우 이장우와 진기주가 출연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삼광빌라에 모여들었으나, 이곳 터줏대감의 ‘집값’ 댄스에 둘러앉게 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들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앞서 전인화, 정보석, 황신혜가 출연을 결정했다.

이장우는 대기업 회장 우정후(정보석 분)의 아들 재회를, 진기주는 삼광빌라 터줏대감 이순정(전인화)의 딸 딸 이빛채운을 연기한다.

이장우는 시청률 49.4%를 기록한 ‘하나뿐인 내편’에서 만났던 홍석구 PD와 재회하게 됐다. /연합뉴스



‘장르만 코미디’의 다양한 코너들

‘개그와 드라마의 만남’ 주말 예능 시청률 도전장

‘개콘’ 후속 프로 JTBC ‘장르만 코미디’ 1.4% 출발

KBS 2TV ‘개그콘서트’ 폐지 후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가운데 웃음드라마와 개그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가 이들에게 또 다른 무대를 열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 40분 방송한 JTBC ‘장르만 코미디’ 1회 시청률은 1.436%(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첫 회에서는 ‘끝까지 보면 소름 돋는 이야기’(이하 ‘갈보소’), ‘억G&조G’, ‘장르만 연예인’, ‘찰리의 콘텐츠거래소’, ‘뽕의 세계’ 코너가 첫선을 보였다.

특히 예상치 못한 결말로 웃음과 교훈을 함께 안긴 ‘갈보소’,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B급 재미를 추구한 춤사위로 눈길을 끈 ‘억G&조G’, 안영미의 열연이 화제가 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 패러디 ‘뽕

의 세계’ 등이 호응을 얻었다.

이렇듯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이 호평받았지만, 방송이 장기화할수록 식상함을 벗어나지 못했던 ‘SNL코리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새로운 코너를 끊임없이 내놓는 게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르만 코미디’에 이어 방송한 ‘아는 형님’은 5.22%, ‘비긴어게인’은 2.772%의 시청률을 보였다.

토요일 예능 중 KBS 2TV ‘살랑하는 남자들’은 6.9%~9.6%, ‘악인전’은 3.1%~3.4%, MBC TV ‘백파더’는 2.4%~4.2%, ‘놀면 뭐하니’는 7.1%~8.9%, ‘최애 엔터테인먼트’는 3.4%~7.2%, ‘전지적 참견 시점’은 4.6%~5.5%, SBS TV ‘박장대소’는 3.7%~5.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퀵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 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복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 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무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기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